

# 광주·전남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출 몰렸다

### 여신 비중 광주 30%·전남 50%...예금은행 대출 증가율 하락 주담대 비중 낮고 신용대출 높아...여수신 비중 전국 상위권

5대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2금융권 대출 비중과 증가 폭은 다른 광역시·도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금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 때 2금융권 금융기관들의 증가율은 30%를 넘겼다. 이 같은 내용은 박지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이 10일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현황 및 시사점'에 담겼다. 박 과장은 농·축협 등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특정지역 주민(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현황과 경영여건 등을 분석했다. 영업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지역은행은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년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2020년 지역밀착형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광

주 29.6%·전남 40.2%로, 전년보다 각각 3.7%포인트, 4.0%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다른 광역시 평균 비중 21.2%와 광역도 평균 25.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년보다 광역시는 0.4%포인트 줄고, 광역도가 1.8%포인트 늘어난 것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최근 5년 동안(2016~2020년) 지역밀착형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해마다 늘었다. 광주는 16.9%(2016년)→17.5%(2017년)→20.5%(2018년)→26.0%(2019년)→29.6%(2020년) 등으로 늘어났고, 전남은 22.9%(2016)→26.3%(2017)→34.6%(2018)→36.2%(2019)→40.2%(2020) 등으로 증가했다. 예금은행과 지역밀착형 기관 사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감률 격차는 2020년 이후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년과 비교한 광주 지역밀착형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30.7%였지만 예금은행은 전년보다 오히려 0.7% 줄었다.

전남 지역밀착형 개인사업자 대출도 33.8% 늘어날 동안 예금은행은 7.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등 자금수요에 대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상당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기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여신(대출)은 광주 18조3000억원·전남 2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2.2%, 12.7%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코로나19가 국내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증가율(광주 6.3%·전남 7.0%)의 2배 수준이다. 지역 여신에서 지역밀착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29.9%·전남 49.6%에 달한다. 광역시 평균 23.2%와 광역도 평균 31.8%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지역 전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가운데 지역밀착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 2020년 말 기준 역대 가계대출 중 지역밀착형 비중은 광주 33.8%와 전남 59.4%로, 타 광역시(24.6%)와 광역도 평균(37.0%)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비중도 광주 21.9%·전남 34.9%로, 평균(광역시 19.1%·광역도 24.0%)보다 높았다. 가계대출을 들여다보면 광주·전남은 다른 지역

과 비교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고 신용대출 비중은 높았다. 광주·전남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높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적고 신용대출 비중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밀착형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36.6%·전남 19.7%인 반면, 광역시 평균(39.1%)과 광역도 평균(27.8%)은 이보다 높았다. 지역 신용대출 비중은 광주 19.1%·전남 21.1%로, 다른 지역 평균(광역시 11.3%·광역도 13.6%)을 넘었다. 박 과장은 "인구 10만명당 지역밀착형 점포 수는 광주 7.9곳, 전남 15.6곳으로 광주는 광역시 중 가장 많고 전남은 제주(15.9곳) 다음으로 많다. 지역 여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지역 금융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코로나19 금융 지원 3월 종료 등으로 인해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증가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26.72 (-28.17)
↓ 코스닥	980.38 (-14.78)
↑ 금리(국고채 3년)	2.058 (+0.043)
↓ 환율(USD)	1199.10 (-2.40)

### 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연장

#### 35개 기업 6개월간 7200만원 감면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30% 감면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단지공단 본부는 선제적으로 광주첨단산업단지 내 하이테크센터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1년10개월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약 40개 입주기업에 총 3억27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에 따라, 하이테크센터 내 입주기업 35개 기업은 6개월간 7200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롯데백화점 조직개편 단행...지역본부 통합 전문성 강화 나서

### 광주·전남 점포 3곳 수장 교체

'신세계 출신'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가 취임 6주 만에 첫 조직개편을 10일 단행했다. 광주·전남 롯데백화점·롯데아울렛 4개 점포 가운데 3개 수장을 교체하고 지역을 총괄하는 영호남본부 등 지역본부를 통합한 점이 눈에 띈다. 이날 롯데백화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임원 보임 및 정장 이동'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백화점과 아울렛을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 수도권 1·2 본부와 영호남본부 등 3개 '지역 단위'로 나뉘던 관리 조직을 하나로 통합했다. 3년 전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을 신설한 뒤 영호남본부를 거친 지역본부가 각각 백화점 사업·아울렛 사업 부문으로 흡수 통합된 것이다. 이번 지역본부 통합은 지난 3년 동안 독립된



왼쪽부터 전호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장, 오재철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장, 김광희 남약점장.

형태로 운영되면서 외부 브랜드 업체들과 협력이 떨어졌다는 정 대표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롯데백화점은 상반기 인사에서 광주·전남지역 4곳 중 3곳 점장에 대한 신임 인사를 단행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에는 전호일(47) 상무가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에는 오재철(48) 점장, 남약점장에는 김광희(49) 점장이 부임했다.

중남 계통 출신인 전호일 상무는 중남대학교를 졸업한 뒤 2000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했다. 롯데백화점 본점 영업총괄팀장, 수도권지역 영업기획팀장, 상품본부 식품팀장 등을 지냈다. 기존 나연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롯데슈퍼 기획지원부본부장으로, 김병일 롯데아울렛 남약점장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장으로, 양남군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장은 롯데몰 군산점장으로 영전했다. 롯데 관계자는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의 이번 조직 쇄신안은 최근 불거진 경영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신세계맨'으로 통한 정 대표는 롯데의 '순수 헬륨주의'를 깨고 지난해 대표로 선임됐다. /백희준 기자 bhj@



"간편하게 이동하는 나만의 TV"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9층 LG전자 매장에서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도 최장 3시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TV '스탠바이미'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뒤 MZ 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주문 구매하면 한 달 가량 뒤에 수령할 수 있다. <롯데쇼핑 제공>

## 광주 소매·유통업 1분기 체감경기 '호전'

### 명절·신학기 등 소비 회복 기대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은 1분기 체감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10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58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01로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 76보다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역 소매·유통업계가 체감경기 호전을 전망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에 대한 기대와 명절 및 신학기 시즌 등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기분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그 미만이면 반대를 뜻한다. 경영향목별로는 매출·수익전망(76→101)은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기대와 신학기·명절시즌 등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전분기보다 전망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전망(86→103)은 구조조정, 광고비 절감 등 관리비용 축소 계획에 따라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